



3면

문 대통령 "민간참여 병역문화개선기구 설치"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음 4월 28일) 제279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천변 2길 6번지

전북도-3개 시·군, 새만금 발전 '맞손'

행정협의회 구성·33센터 내 사무소 설치 등 '새만금권역 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 발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송하진 도지사의 제안으로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7일 전북도청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이 이날 합의한 내용은 전북도와 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 원칙적으로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의 사무 범위 운영 절차, 규약 제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 수시 운영하며, 협의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새만금33센터 내 사무소 설치와 직원 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규약 제정 등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위한 '실무행정협의회'는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시·군별 국장급으로 구성해 권한 있는 의사결정과 속도감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는

새만금33센터 내 설치되는 사무소에는 도 5급 시·군은 6급 또는 7급 중 각 1명으로 총 4명이 배치돼 운영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합의는 지난 1987년 새만금 간척사업 시작 이래 새만금 발전을 위해 광역행정 차원에서 전북도와 3개 자치단체가 한 뜻을 모아 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후속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전북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새만금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어, "행정협의회 구성 제안에 흔쾌히 동참하기로 결단을 내려준 시장 군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행정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논의하고 이견이 있으면 함께 모여 답을 찾아가면서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새만금 개발청이 각각의 자치단체와 논의하느라 조정이 힘든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구성하는 협의회를 통해 전북도와 각 시·군이 먼저 조정을 하고, 이



송하진 도지사의 주재로 성공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간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7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익현 부안군수, 강임준 군산시장, 송하진 도지사, 박준배 김제시장.

를 새만금청에 제안한다면, 전북도민이 바라는 새만금으로 변모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행정협의회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힘을 합치는

대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제 협력의 첫발을 내딛던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두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그간 새만금은 부안군민에게 희망고문의 측면이 있

었지만 지사님이 행정협의회를 만들으셔서 희망의 땅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만금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려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산·학·연 혁신 역량 키운다

KIST 전북분원 파트너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 전북분원 복합소재 기술연구소(분원장 김진상)는 전북 지역 산·학·연 기관의 혁신 역량 및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산·학·연 파트너십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동안 복합소재기술연구소는 장비활용협력사와 패밀리티업 제도를 실시해 전북지역 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기 어려운 고가의 연구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발전시켜, 첨단장비 신장인제도를 통해 기존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지역대학에게도 사용료를 50% 할인해주고, 지역의 중소기업에게는 75% 수준으로 사용료를 할인해줘 전북분원이 보유하고 있는 100여종의 첨단장비를 충분히 공동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KIST 전북분원의 우수 연구인력이 지역 기업과 1:1로 매칭돼 기업 현장에 직접 방문, 애로기술을 맞춤형으로 해결하고 기술사업화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기술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현안 사업 국가 중장기 SOC 반영 도정 역량 집중

전북도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일 송하진 도지사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전북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최훈 행정부지사는 국가 중장기 도로 계획 실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을 만나 전북도건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최훈 행정부지사, 국토부 찾아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반영 설득 기재부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시설 구축 지원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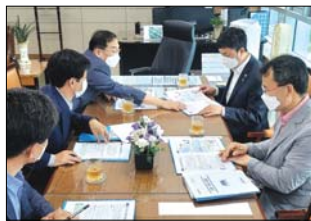
최 부지사는 부안 변산면과 고창 해리면을 연결하는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도내 후보 대상 20개 구간이 일괄 예타에 통과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피력했다.

아울러, 올해 6월 발표 예정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에서 무주, 성주를 거쳐 대구를 잇는 총연장 128.1km의 4차선 고속도로인 전주~대 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어 최 부지사는 영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중앙물 전용부두 개발 등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3년까지 총사업비 441억원이 투자돼 건설 중인 7부두 야적장과 연계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전문적으로 조립 제작할 수 있는 중앙물 전용 부두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최 부지사는 군산항이 서남권



해상에 조성될 풍력발전 사업의 거점이 되려면 2만 톤급 선박이 이·접안할 수 있는 중앙물 전용 부두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따라 제4차 항만기본 계획 변경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현 군산항 투기장(금란도)이

2022년 만료 예정으로 2023년도부터 발생하는 준설토 처리를 위해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친환경 선박법 시행에 따라 특수목적선의 친환경 추진체로의 수요 확대와 디지털 성능 향상 수요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 부지사는 발길을 부처별 1차 심의가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로 옮겨 전북도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먼저, 동물용 의약품 연구·개발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

업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시제품 제작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동물용 의약품의 시제품 생산지원시설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내년도 국비 7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설계비 등으로 국비 5억원 반영도 피력했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끝나는 8월 말까지 정부예산안 최다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 정치권이 힘을 모아 총력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 16일에는 14개 지역 시장·군수를 포함해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시·군, 정치권과의 공조활동 시스템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